

제이슨 본, 첩보영화의 클래식 되다.

'제이슨 본'(감독 폴 그린그래스)은 우리가 알던 제이슨 본 그대로였다. 이 걸작 첩보액션 시리즈의 신작은 전 세계 관객이 사랑해 마지않았던 그 우울한 은둔자의 인장(印章)을 다시 한 번 스크린에 찍어 내린다.

본은 여전히 주위를 꼼꼼히 살피며, 군중 속을 빠른 걸음으로 망설임 없이 움직인다.

간결하면서도 강력해 폭발력을 가지는 본 특유의 전투 기술도 여전히 있다.

개인적 집단 자유와 통제에 관통하는 이 영화의 논쟁 또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접 촬영과 빠른 화면 전환, 잘게 나눈 컷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촬영·편집 솜씨 역시 명불허전이고 이렇게 형성된 긴장감을 느낀 화면 전환과 블레이크로 더욱 끌어올리는 재주도 살아있다.

한 마디로 제이슨 본은 첩보 액션의 '클래식'이다.

'제이슨 본'은 전편인 '본 얼티메이텀'(2007)에서 본을 도왔던 전직 CIA 요원 니키 파슨스(줄리아 스타일스)의 등장으로 시작한다.

파슨스는 CIA에게서 본의 탄생과 관련 있는 프로그램 트레드스톤에 대한 비밀을 해킹하는 데 성공한다.

해킹을 감지한 CIA는 파슨스와 본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예상하고 두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한편 본에 의해 트레드스톤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블랙브라이어를 폭로 당한 바 있는 CIA는 그들이 새롭게 진행 중인 감시 체계 '아이언핸드'에 관한 정보가 본에게 넘어갈까 전전긍긍하며, 다시 한 번 본 제거에 나선다.

근접 촬영·빠른 화면 전환·잘게 나눈 컷 등 긴장감 고조



제이슨 본'은 전편인 '본 얼티메이텀'(2007)에서 본을 도왔던 전직 CIA 요원 니키 파슨스(줄리아 스타일스)의 등장으로 시작한다.

'제이슨 본'은 변한 듯하지만 변하지 않은 작품이다. 전작에 출연한 배우는 맷 데이먼과 줄리아 스타일스가 전부다.

세계의 모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추적하고 CCTV와 GPS를 활용해 본을 추적하는 CIA의 기술력은 직전 작품인 '본 얼티메이텀'에서의 그들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전했다.

새 감시 체계인 아이언핸드 또한 소셜네

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전방위적인 정보 수집으로 진화했다.

하지만 이런 설정들은 이 시리즈의 변화라기보다는 시간의 흐름 정도로 이해하고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 게 맞다.

오히려 폴 그린그래스 감독은 예전에 '본' 영화를 만들던 방식을 안정적으로 반복한다.

다시 말해 그린그래스 감독은 새로운 것

을 온전히 창조해내기보다는 '본' 특유의 서사 진행 방식과 촬영방식, 액션 스타일을 일종의 고유한 특징 삼아 밀어붙인다.

본에 대한 입장과 감시 체제를 둘러싼 CIA 내부의 갈등이랄지, 본의 조력자가 돼 주는 인물의 등장, 본에게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인물들의 운명도 유사한 면이 있다.

본의 목숨을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는 존재인 저격수 또한 '제이슨 본'에서 빠지지 않는다. '제이슨 본'은 이 시리즈가 가진 일종의 '오리지널리티' 혹은 '시그니처'에 새로운 양념 몇 가지를 추가하고(이러면 '딥 드립'이라든지), 시리를 얹어주는 식으로(대규모의 라스베이거스 자동차 액션 시퀀스) 만들어진 작품이다.

거대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직원을 강조하는 의무와 각 개인의 행복을 우선 시하는 인간 권리의 충돌, 엄격한 통제를 통한 안정과 개인적 판단을 통한 자유의 대립은 세계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논쟁거리가 돼 왔던 '본' 시리즈의 뼈대를 이루는 고전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3부작'을 못 본 관객이라면 왜 이 시리즈가 그토록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지 이 영화를 통해 알게 될 것이고 전작들을 봤던 관객이라면 왜 이 시리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이슨 본'은 전작을 답습했다는 비판 또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한다.

다른 액션 영화들의 속편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전작들을 보지 않으면 '제이슨 본'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도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이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 도내 지자체와 함께 평균 2만관중 목표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도내 지자체와 손을 맞잡고 평균 2만 관중이라는 목표를 함께 내세웠다.

전북은 2년 연속 평균 관중 1위 달성과 지역 연고 구단으로서 역할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전라북도과 전주시 완주군을 비롯해 김제시, 진안군은 전북의 공식 후원 단체이며 올해는 고창군까지 추가됐다.

이들의 협력은 단순 형식적인 후원관계가 아닌, 전북현대를 응원하고 지원했다. 전라북도과 전주시는 팬들을 위한 1994버스 노선을 개설하는가 하면 완주군은 클럽하우스 건립과 선수단체에 와일드 푸드를 공급하며 경기력 향상에 힘썼고 김제시와 진안군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과연 전북이 도내 지역 지자체와의 협력확대를 통해 전북만의 축구문화를 조성하고 평균관중 2만 시대에 돌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민근기자

일구회 "승부조작 선수 노력 팬의 사랑 배신 행위"

사단법인 일구회(회장 윤동균)는 최근 승부조작과 관련한 야구계의 깊은 우려와 함께 반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일구회는 "승부조작은 선수의 노력을 부정하는 사건이며 팬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2000년대 초·중반 한국야구는 팬의 관심에 멀어지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야구인과 관계자, 선수가 노력해 한국 최고의 프로 스포츠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승부조작은 그런 모든 노력과 팬의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한국 야구계를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리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후배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질책하는 동시에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일구회는 "원로 야구인을 비롯한 일구회원은 선배 야구인으로 후배에게 제대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도 든다. 또한, 야구를 시작하면 오로지 야구의 기쁨만을 중시하는 한국 야구의 풍토도 작금의 승부조작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승부조작 사건으로 한국 야구계에 실망한 팬이 적지 않을 것이다. 선수가 사랑에 대한 책임감을 잃은 승부조작 행위를 한 것에는 선배 야구인으로 고개를 깊숙이 숙인다. 다만 염치불구하고 팬들에게 한국 야구에 대한 애정을 거두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민근기자

김현수, 부상 재활 마치고 콜로라도전 선발 출전

오른 햄스트링 부상으로 부상자명단(DL)에 올랐던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가 재활을 마치고 빅리그에 복귀했다. 김현수는 27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스 파크 캠프 애드에서 열리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 2번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다.

김현수가 빅리그 경기에 나서는 것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지난 11일 LA 에인절스전 이후 16일만이다.

김현수는 11일 에인절스전에서 1회말 내야 땅볼을 치고 1루로 전력질주한 뒤 오른 햄스트링에 통증을 호소했다.

구단은 김현수를 부상자명단에 올리지 않고 워싱턴에 동행하며 상태를 지켜보다 결국 지난 20일 김현수를 부상자명단에 등재했다. 큰 부상이 아니었던지라 김현수는 빅리그 로스터 등록이 가능해진 날자에 메이저리그에 복귀했다.

김현수는 복귀 이전인 25일과 26일 볼티모어 산하 더블A 팀인 보위 베이스스 소속으로 재활 경기를 치렀다.

/김민근기자

최초 남미 대륙에서 열리는 '리우올림픽' 손님맛이 한창

122년 만에 최초로 남미 대륙에서 열리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리우올림픽은 다음달 5일(현지시간) 개막해 21일까지 17일 동안 열린다.

2008 베이징올림픽과 2012 런던올림픽의 20개국을 넘어 역대 최다인 206개국 참가한다.

선수단 인원만 1만5000명이 넘는다.

브라질 정부는 취재진, 관광객 등을 포함해 총 35만 명이상이 올림픽 동안 리우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8일 불안한 치안과 테러의 위협 속에서도 리우는 올림픽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이미 군인과 경찰이 사방에 깔렸고,

대회 기간군경 9만명 투입·자원봉사자 5만명 이상

자원봉사자들도 올림픽 체제에 돌입한 모습이다.

대회 기간 동안 군경 9만 명을 투입할 예정이고, 자원봉사자는 5만 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리우의 관문인 갈레앙 국제공항은 선수단, 취재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각국 올림픽위원회(NOC) 등 올림픽 패밀리를 맞이하기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올림픽 패밀리를 위한 전용 통로를 만들어 빠른 입국심사를 도왔고, 공항 올림픽 ID 등록 절차까지 마무리하게 했

다.

그러면서도 꼼꼼한 검색을 절대 빠뜨리지 않았다.

리우올림픽 경기는 바하, 데오두루, 코파카바나, 마리카냥 등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뉘어 32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주변에 병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리우는 교통지옥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서 베이징이나 런던처럼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운영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30일부터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직

일부 구간의 정류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또 올림픽 손님을 위해 전용차선을 운영한다. 이 차선은 IO에서 발급한 승용차 전용 ID가 있는 차량만 다닐 수 있다.

올림픽공원이나 경기장 주변은 일반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다.

이밖에 지난 5일(현지시간) 각국 취재진을 위한 메인프레스센터(MPC)를 개장했고, 24일 선수촌을 열었다.

리우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테스트이벤트를 실시해 운영 모의고사도 치렀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